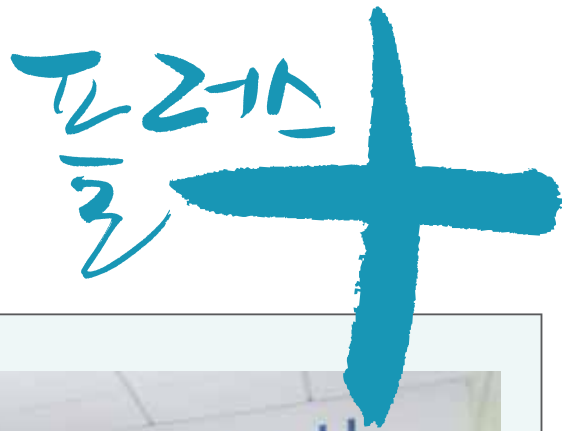




신속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서울의료원 소화기센터' 개소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2월 1일(금)부터 소화기내과를 소화기센터로 확장하여 운영한다. 소화기질환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진시스템을 통한 소화기센터 운영을 계획하게 되었다. 개소식은 지난 2월 7일(목) 정례회의가 끝난 후 김민기 원장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소화기센터 앞에서 진행되었다.

소화기센터는 소화기질환·간질환·췌장도질환 등을 진료하는 외래진료실과 최신 장비를 갖춘 내시경검사실이 하나로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내시경의 경우 당일 진료 및 내시경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검사 대기기간이 길었던 대장내시경의 경우에도 진료부터 검사 예약까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진료실과 검사실을 같은 공간에 위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최신의 고난이도 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의료원 금연병원 선포식



서울의료원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차단하고 환자와 직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고자 지난 2월 12일(화) 이수형 HPH팀장(가정의학과 과장)의 사회로 1층 로비에서 금연선포식을 가졌다. 행사는 김석연 진료부장의 금연선언문 낭독에 이어 양순재 의무부원장의 모형담배 자르기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참석한 임직원 및 내원객이 함께 환자와 동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병원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

지 않고 병원의 금연 운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행사 후에는 임직원들이 금연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병원 인근을 돌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병원 입구에는 ▲흡연폐해 사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흡연을 차이 ▲흡연자의 몸 등 다양한 금연홍보물이 전시되었으며, '금연지킴이 뱃지'와 '니코틴 패치'가 무료 배포되어



내원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양순재 의무부원장은 "점차 금연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흡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병원의 모든 구역이 금연지역임을 알면서도 아직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 금연병원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증아 놀자!’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적정진료팀은 다가오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을 대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대회를 지난 2월 27일(수) 오후 5시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현업으로 바쁜 직원들이 의료기관인증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개최되었다.

퀴즈대회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150명의 신청자를 받아 의료기관인증 기본개념과 전직원 공통부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진행방식은 퀴즈 참가자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문제를 풀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법이다. 문제는 사회자가 낭독한 후 직원이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어 탈락자를 가리며, 탈락자가 너무 많을 경우 패자부활전을 진행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중간에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 일반 상식 퀴즈, 넌센스 퀴즈가 진행되어 문제를 맞힌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이 날 최우수승자는 이주안 간호사이며, 상품이 전달 되었다.

이외에도 인증을 대비하여 2월 18일(월)~20일(수)까지 임원진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증 관련 시험이 진행되었고, 2월 20일(수)~22일(금)까지 제3차 인증준비 모니터링이 실시되어 부서별 인증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수현 적정진료팀장(내과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은 13개 중요한 항목에 대해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 달리 인증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로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4월 인증 수검까지 임원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하여 성공적인 인증획득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아토피천식센터 김현정 과장 출연



아토피천식센터 김현정 과장은 대표적인 건강정보 프로그램인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장 속 유익균이 건강을 지킨다’편에 출연하였다. 이번 방송은 프로바이오틱스란 유산균을 통해 각종 장 질환과 면역계 질환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아토피천식센터 김현정 과장은 방송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장 내 환경 개선뿐 아니라 면역 증진과 아토피 완화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아토피천식센터에서 치료 받고 있는 소아환자와 환자의 어머니의 인터뷰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현정 과장은 지난해 5월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아토피피부염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3회 LGG유산균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여 언론에 소개되었다. 이번 방송은 2월 9일(토) 저녁 8시에 방영되었고,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를 통하여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다.



2013년 첫 경영설명회 개최

TBS 교통방송 라디오, 『건강주치의』 코너 서울의료원 의료진 출연 방송일정

- 방 송 사: TBS 교통방송 95.1Mhz
- 프로그램: 라디오를 켜라! 나선희입니다. 코너명: 『서울의료원 건강주치의』
- 방송시간: 주중 월~금요일 아침 6시20분~23분
- 내 용: 질병의 원인과 치료, 예방 등의 알기 쉬운 의학정보 제공
- 3월 출연일정

방송일정	3월 4일 ~ 8일	3월 11일 ~ 15일
진료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전문의	오주선	김현정



※상기 방송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예산절감 우수사례 포상

2012년 예산절감 우수사례 포상이 오는 3월 초 정례회의 시간에 있을 예정이다. 예산절감 우수사례 포상은 예산절감에 기여한 우수 부서에 대해 동기부여와 더불어 예산절감노력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심사는 2012년도 예산절감 사례를 대상으로 2월 18일(월)~27일(수)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포상기준은 총 6가지 문항(▲기존 혹은 타기관에 비해 사례의 창의적 혁신 정도 ▲사례의 내용에 대한 자발적 노력의 정도 ▲사례 추진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정도 ▲사례의

예산 절감액 수준이 기대에 도달하는 정도 ▲향후 지속적인 추진가능성의 정도 ▲기관 전체로 전파 및 적용가능성의 정도)로 되어 있으며, 7점 척도 평균점수가 5점 이상인 사례 중에서 결정된다. 한편, 지난 2011년에는 최우수상에 ‘지하철 역사 내 포스터 광고 무상지원(홍보팀)’, 우수상은 ‘수도세면기 수압 토출량 조절에 의한 예산절감(시설관리팀)’, 장려상은 ‘외부협약체결에 따른 건강노인선발대회 비용 절감(HPH팀)’이 수상하였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첫 경영설명회가 지난 1월 31일(목) 4층 대강당에서 있었다. 기획경영팀은 설명회를 통하여 분야별 사업실적, 경영수지 실적, 경영평가 지표달성 등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지난 2012년 서울의료원의 성장과정을 되돌아보았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앞으로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 경영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안전병원 운영, 고객만족도 향상,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더불어 경영실적까지 우수한 내실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2차 모니터링 총평과 외부 초빙강사 강의가 이어졌다. ‘꿈과 희망이 있는 병원’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타병원의 우수사례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북부병원 소식]

북부병원, 찾아가는 병동 음악회 개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은 1월 25일(금)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동음악회'를 진행했다. 병원은 입원환자들의 단조로운 병상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공연은 병원 인근의 '헤지 뮤직아카데미' 공연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귀에 익숙한 '고향의 봄', '과수원 길' 등 추억의 멜로디를 선사했다. 현재 입원중인 고재석 할아버지(72세)는 "손자 녀석이 너무 보고 싶어 혼났다. 손자 녀석들이 예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얼른 건강해져서 집에 가고 싶다"며 "힘든 병상생활 속에서 흥겨운 공연을 들을 수 있어 흥겨웠고, 병상생활에도 활력이 되는 것 같아 좋았다"고 전했다. 한편 '헤지 뮤직아카데미' 공연팀은 매월 1회 병원을 찾아 '찾아가는 병동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북부병원에는 3년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부병원 소식]

동부병원, 환우들을 위한 웃음치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정일)은 지난 2월 15일(금) 환우들을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5층 병동 휴게실에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여동안 진행된 웃음치료는 박수와 노랫소리로 흥겨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처음에 굳어있던 환자들의 표정도 점차 환하게 펴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음악소리를 듣고 모여든 환자들이 열기가 더해졌다. 웃음치료는 인위적인 웃음 운동이지만 이로 인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웃음치료를 준비하러 가는 길에 만난 한 환우 분은 '웃으라고 시킬까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나 막상 참여 후엔 다른 어떤 환자분들보다 행복해 하였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참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치료에 참여하면서 크게 웃고 나니 마음에 있던 화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진다.'는 말도 있듯이 웃을 일이 많지 않은 환우들과 더불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치료가 아닌가 생각 된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매월 1회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식]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매주 새로운 공유경제 기업의 아이디어와 도전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함께해주세요.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기업의 늘어날수록 더 멋진 공유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공유경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공유경제 한마당도 열 계획입니다.

-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 3/07 쏘카 - 언제 어디서나 내차처럼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 ▲ 3/14 코자자 - 전국에 있는 한옥에서 코자자, 소셜 민박 서비스
 - ▲ 3/21 원더랜드 - 쉽고 빠른 놀라운, 개인용품 소셜 대여 플랫폼
 - ▲ 3/28 품앗이 파워 - 엄마들의 재능으로 더불어 키우는 품앗이 육아 공동체
 - ▲ 4/04 위즈돔 - 세상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만나다. 경험 공유 플랫폼
 - ▲ 4/11 페어스페이스 - 소유의 공간에서 공유의 공간으로. 공간기부 캠페인
 - ▲ 4/18 공유경제 한마당 - 공유경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라!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회의실
- 참가접수 및 문의: 위즈돔 홈페이지 / www.wisdo.me
위즈돔 고객센터 / 070-8260-5200

‘서울의 공원’ 모바일 웹사이트 오픈

<http://m.parks.seoul.go.kr>

공원소개와 공원이용 프로그램, 시설 예약 등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모바일 웹버전이 오픈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원의 주요소식, 프로그램을 예약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된답니다. 핸드폰으로 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축구장, 바비큐장 등 공원시설도 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면서 즐거웠던 일, 불편했던 사항들도 바로바로 이용후기에 등록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도 ‘서울의공원’을 검색하여 이용해 보세요.



언론에 소개 된 서울의료원

- 신문
 - 메트로(2013.01.31): 서울의료원 180병상 간병인 불필요
 - 포커스(2013.01.31):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개원
 - AM7(2013.01.31):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오픈
 - 노컷뉴스(2013.01.31): 간병서비스 24시간 제공
 - 시티신문(2013.01.31): 24시간 간병 ‘환자안심병원’ 문 활짝
 - 스포츠한국(2013.01.31):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오픈
 - 뉴스위크(2013.02.01): 잘못 모셨다가는 ‘두번 불효’
 - 메디칼타임즈(2013.02.01):
[현장] “간호사님, 머리 좀 감겨주세요”
 - 한겨레신문(2013.02.08):
간호사가 간병까지... 환자, 보호자 “안심병동 감동 커요”
 - 한국일보(2013.02.08):
“간병비 걱정 없고 가족에 부담 안 줘 좋아요”
- TV(드라마)
 - JTBC 주말드라마 ‘무자식상팔자’(2013.2.10)
 - SBS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2013.2.27)
- TV(시사 및 교양)
 -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2013.02.09):
장 속 유익균이 건강을 지킨다
- 라디오
 - 방 송 사: TBS 교통방송 95.1Mhz
 - 프로그램: 라디오를 켜라! 나선희입니다.
코너명:『서울의료원 건강주치의』
 - 기간: 2월 1일 ~ 28일
 - 출연: 정신건강의학과 이해우, 신경외과 장세연,
신경과 김지은, 비뇨기과 이신영
 - TBS 교통방송 ‘서울 속으로’(2013.02.20):
<시민리포터가 간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특집 기고 - 꿈의 병원]

Best Friend, Best Hospital 최고 병원 되려면 고객과 직원이 만족해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준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으며,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은 병원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 중심 패러다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유기적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을 넘어 환자가 기뻐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병원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서비스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기뻐하면 반드시 재이용 의사표시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환자가 감동을 받는다면 병원을 재이용함은 물론이요, 자신의 경험치를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파해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이른바 ‘충성고객’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환자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면 과거에는 병원을 재이용하지 않는 것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부정적인 입소문을 전파합니다. 이에 따른 파급력도 강해 병원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성고객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불만족 고객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객의 불만족은 매우 귀중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하며, 모든 업무의 안전밸브로 여겨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며, 환자의 눈높이보다 더 정밀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릇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병원 직원들이 만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먼저 조직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가족 같은 마음, 가장 친한 친구의 마음으로 다가가 직원들이 신바람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따뜻한 마음’, ‘용기를 북돋는 마음’을 전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동기 부여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창의적인 업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독여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고객이 감동 받는 최고의 병원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 권용진



[신규직원 소개] 새로운 서울의료원 가족을 소개합니다.



류마티스내과 최병용 과장

반갑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의료원의 한 식구가 된 내과 과장 최병용입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무척 기쁘며, 공공 의료의 중심이 되는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내과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 주로 자가면역질환과 다양한 급만성 근골격 질환을 다루는 류마티스내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면 흔히들 류마티스 관절염을 연상하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 인구의 0.5에서 1%의 빈도로 발병하는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최근의 지속적인 계몽 활동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전히 난치성 질환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질병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신약 개발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치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질환을 진단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가진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증의 우울증을 동반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게다가, 만성 질환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치료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가진 질환 이외에 심리적 문제나 외부요인에 보다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그런 노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만족스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새내기로서 여러분께 앞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서울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무심사팀 송의태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8일부로 서울의료원 근무를 시작하게 된 사무관리사 송의태 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였고, 서울의료원에 오기 전, 두 군데 병원에서 짧은 경력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임상의학연구소 내의 행정실에서 수백명의 연구원들을 관리하고, 연구소 내에 있는 각종 실험 기기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원들과 함께 일한 것이 무척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같이 근무했던 연구원들과의 모임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각종 제약회사와 진행하는 임상시험연구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아 계약서 검토에 무척 애를 먹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없이 근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전 2개의 병원에서는 주로 연구지원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의료원에서는 원무심사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게는 많이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배울 것이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서툰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홍소영(의학연구소, 2월 23일)
한경훈(의학연구소, 3월 1일)
박진숙(응급의료센터, 3월 1일)
허은별(건강증진센터, 3월 9일)

인사이동

2월 신동규(외과 주임과장 임명)
소윤섭(강남분원 외과)
조미래(공공의료팀, 아토피천식센터 겸직)
신능인(강남분원 -> 공공의료팀)

교육 연수

국내 박충규(2월 1일~2일, JW Marriott 호텔) CHORUS 2013 중앙-메이요 심장 혈관치료 국제협력회의
김민영(2월 2일~3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제7회 대한신장학회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 2.1. 문진화, 최영경, 양희영, 권나래(병동간호팀) 내정아, 송한나(특수간호팀) 이문옥(영상의학과)
오민영, 김애린, 김은지(외래간호팀) 이경희(의무기록팀) 정상주(건강증진센터)
- 2.14. 주재용, 조순옥, 유수진, 최연옥, 김옥희, 유상경, 장현주, 이순정, 노미자, 김혜숙, 남궁금란, 박한정(병동간호팀) 이연래, 양경옥(식당)
- 2.18. 전현정(내과) 김효진, 김혜미, 서귀영(간호부) 송의태(원무심사팀) 조기상(공공의료팀)
- 2.25. 원종예, 손진희, 김현진, 이광찬, 김미숙, 장명숙, 김유리, 한영희, 민미자, 김종상, 황지영(간호부)
신우철, 공보은(계약심사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2.5. 송현미(진단검사의학과) 신연희(병동간호팀)
- 2.6. 최주경(외래간호팀) 2.8. 김성은(내과) 2.11. 한규민(병동간호팀)
- 2.12. 정슬기(특수간호팀) 최정애(병동간호팀) 허만진(외래간호팀) 이미정(식당)
- 2.28. 김은수(재활의학과) 김준엽(정형외과) 김진수(정형외과)

강남분원
외과신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과를 신설하여 진료를 시작합니다. 담당 전문의는 동부병원 진료부장을 역임하였던 소윤섭 과장님이며, 전문진료분야는 대장항문, 탈장입니다.
※ 진료 예약 및 문의: 강남분원 02-3430-0261 (전체 진료과 시간표는 홈페이지 <http://kn.seoulmc.or.kr> 참고)

오전진료: 월, 수, 금
오후진료: 화, 수, 목